



목어



내가 거처하는 요사채 바로 앞에 밤나무가 수십 그루 서 있다. 늦더위가 아직 미련을 보이고 있는데도 성급한 밤나무...

'들 앞의 잣나무'는 아주 유명한 공안이다. 누가 어느 선사에게 부처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들 앞의 잣나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밤을 주우면서부터 내겐 그런 거창한 화두보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뇌리에 노상 머물고 있다. 잣나무...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엔론사태 이후 연이어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

두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현장을 제정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 50% 정도가 윤리현

76.3%를 차지하였다. 경영의 기본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고객, 품질, 기술, 현장, 사람으로 연결되는 전략의 고리로 설명한다.

인간적가치 체득 불교경영 기초

돈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가치에는 사업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의 두 가지가 있다. 사업적 가치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윤리경영의 결정적 요소가 최고경영자의 의지라고 대부분의 기업이 응답한 것처럼 윤리경영에 중요한 것은 윤리현장을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윤리의식이다.

으로 표현된다. 비전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 봉사하고 이를 위해 모두 하나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도율 김용욱의 초기불교 이해 논란

불교계 공식입장은...

최근 김용욱 씨의 초기불교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스님들이 나서서 무언가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용욱 씨가 진정 그가 불자라고 생각되는지, 단지 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야기 하고 있다면, 우리 스님들이 나서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이다.

경전모임 많았으면

김용욱 씨의 저술과 발언을 가지고 왜 불자들에게 설왕설래를 하는가?

그건 우리 불자들이 그동안 너무 목말랐던 까닭이다. 수십 년 전에 다 니면서도 부처님 말씀 한 번 제대로 못 들어 본 까닭이니, 이제는 스님들이 경전 모임도 자주 하고, 법회도

자주 열여 대중에게 부처님의 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절마다 매일 매일 법회에 열리고 우연히 찾아갔다가도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고 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님들의 법회가 밤하늘에 별처럼 흥흥종 종도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불교 심층이해 계기로

김용욱 씨의 불교강의를 듣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고 가슴에 단비를 만난 듯한 마음이다.

노자 강의를 들었을 때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강의를 못해주나 안타까웠는데, 이번 강의로 불교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가 김용욱 씨의 명강의로 제대로 이해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성찰에 도움되는 회회로

사찰수련회를 다녀와서

말로만 듣던 여름 사찰수련회, 그것도 참선 중심의 송광사 사찰수련회에 다녀왔다. 묵언과 차수, 발우공양 등,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은 두려움도 가졌다.

입재식이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고통이 뒤따랐다. 마음은 바랜듯 차수를 하고 있어 걸음걸이는 뒤뚱했고, 10분 정도만 가부좌를 하고 있어도 다리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향식을 하고 서울로 돌아올 때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수련회를 무사히 끝냈다는 마음과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련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 나눌 펜팔 구합니다

저는 항상 '현대불교' 덕분에 부처님 법을 가까이하며 하루하루를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청송감호소에서 노력하고 있는 오승보라고 합니다.

독선지식(得善知識),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며,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 그 높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면 무엇보다 좋은 청복(淸福)이라 할 수 있으며,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더 없이 좋은 인연이라 하더군요.

백유성자 이치돈 추모시

일선스님(명화동일사 주지)

마음(徒善) 가득한 하늘에 일무리 글자 내서

종(種), 울리고 쓰러진 까치모양 스스로 몸 언저리 불일(佛日)을 밝게 하시라.

반야의 찬양, 신리의 빈 허공을 내리칠 적에 떨어진 건 환화(幻花)요 법신(法身)만이 남았다네.

한번 쉼, 영원히 사시니 영광(靈光)은 도리어 하늘에 닿았고 정혜수(定慧水) 꽃피로 마도(魔徒)를 항복 받으시라.

강하다 남의 넘어여, 마른나무 꽃 피워 보며 주시니 이 소식, 모르는 이 천대(千代)에 없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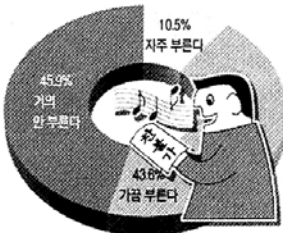
정전(精進), 불일(佛日)이여, 만고광명(萬古光明) 되시옵네.

진흙속에 연(蓮), 한가지 남의 뜻으로 받으시라.

*성자 이치돈선영의 총재 일선스님이 이치돈 순교일인 9월 11일(음력 8월 5일)을 맞아 시를 보내주심

찬불가

불자들은 법회시간 이외에 찬불가를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법회시간외 안 부른다" 45.9%

(45.9%)이 거의 부르지 않는다. 58명(43.6%)이 가끔 부른다. 14명(10.5%)이 자주 부른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찬불가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법회시간에 의식을 위한 노래로만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불가를 몇곡 정도 외우는가 라는 질문에는 84명(63.2%)이 5곡 미만, 34명(25.5%)이 10곡 미만, 7명(5.3%)이 20곡 미만, 8명(6%)가 20곡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출시 품목 (화장품)

- 안방에센스 크림, 안방베이스 크림, 안방미백크림, 안방 아이크림, 안방 영양크림, 안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 (비누)

- 서시안방비누(여드름 제거용), 옥용안방비누(피지 제거용), 수다라안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요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 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증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중구곡"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출시 품목 (식품 / 향)

- POINT24 - 짙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 한방바이오

www.hrbio.com